

# 대한양계협회소식



## 한일 양계협회 친선 교류회 개최 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등 현안문제 논의



본회와 일본양계협회(회장 나가무라미트수오/中村光夫)는 지난 6일 본회 회의실에서 '한일 양계협회 친선 교류회'를 개최하고 양국간의 양계 산업 현안 및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교류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계협회간 친목도모는 물론 앞으로 예상되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보상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농장위주의 살처분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백신에 대한 사용여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생원인에서도 철새에 비중을 두면서도 타 원인을 배제하지 못해 정확히 감염원을 단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협회는 양국간의 협회 조직은 물론

계란가격 결정 및 유통 과정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 협회는 앞으로 양국간의 공조체제는 물론 양계업 발전을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교류회는 본회 최준구 회장, 김선웅 부회장, 이종길 전무, 김동진 홍보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일본양계협회에서는 나가무라미트수오(中村光夫) 회장, 무라이시아이지(村石愛二) 부회장, 시마다히데유키(島田英幸) 전무가 참석하였다.

## 육계산업 관련 간담회 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지난 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육계산업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는 올해 육계산업이 지속적인 원종계의 수입증가로 생산잠재력이 큰 폭의 증가가 예견하고 있지만, 시로 인한 소비감소가 조기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을 강구하

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닭고기 업계가 장기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수급조절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계D/B사업과 자조금사업의 정착으로 업계가 조기에 불황을 탈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날 육계계열사에서는 (주)하림, (주)동우의 실무진이, 종계업계에서는 이연종 종계부화분과 위원장, 이광초 위원, 함경섭 위원, 윤정로 위원이 참석하였다.

### 기자간담회 개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책 등 설명



본회는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양계인대회 개최에 대한 사전 설명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대처방안, 양계산업 불황대책 방안 등에 대한 협회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철새가 이동하는 10월부터 시예방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농장 발판소독조 설치 및 장

화갈아신기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금년 HPAI의 발생이 없이 양계산업이 안정을 찾기를 희망하였다.

###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전국양계인대회 등 주요사항 논의



본회에서는 지난 19일 본회회의실에서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양계인대회, 한·EU FTA 협상 추진상황, 산란계자조금 추진현황,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업무 활동상황 보고, 닭경제능력검정사업 개선방안 용역검토 등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전국양계인대회 개최계획 보고에서는 당일 분과별로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의 회의시간을 가지며 분과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닭경제능력검정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과학원에 용역검토를 의뢰하여 개관적인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자조금 제도 활성화로 양계업 발전에 부흥

지난 12일 대전 유성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이연종)가 개최되었다. '07년 8월 육용 종계입식수수는 646,600수로 전년동월대비



6.1%가 증가했고, '08년 3월 육용실용계 생산잠재력은 53,087천수로 전년동월 대비 17.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보고 하였다. 이날 회의자리에서는 종계부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Master Plan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위해서는 소비촉진을 위한 자조금 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육용병아리 가격연동제 도입 및 종계D/B구축사업 보강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 채란분과위원회

#### 무항생제 계란 인증제 문제점 도출



지난 5일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가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무항생제 계란 인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대부분의 산란계 농장에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무항생제

인증제가 확산되면서 일반농가에서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들은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분과위원들은 무항생제 인증 명칭 변경이나 폐지 등 인증제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검토와 관련해 기존 계사바닥면적 기준을 케이지 바닥면적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으며 추후 현장의 의견을 수렴·파악하여 실정에 맞도록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 육계분과위원회

####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 유도



지난 12일 대전 유성에서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재성)가 개최되었다. 8월 닭고기 수입실적은 4,435톤으로 전월 닭고기 수입량 3,930톤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한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계의무자조금 관련 추진 경과보고와 함께 의결정족수 미달로 유회되고 있는 대의원회 개최건과 관련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조금에 대해 추후

많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 지부소식

### 수원채란지부

#### 임진관 신임 지부장 선출

수원채란지부(지부장 임진관)는 최명구 지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부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진관 신임 지부장 및 임원진 개편을 단행했다. 임진관 지부장은 수원채란지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임진관 지부장

지 부 장 : 임진관

부지부장 : 권무하

총 무 : 이인석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150

전화 : 031)333-0556,

팩스 : 031)333-1530

### 양평 · 가평 · 여주 · 이천육계지부

#### 양계기술교류 합동 연찬회 개최

지난 19일 양평 · 가평 · 여주 · 이천육계지부는 농업기술센터(친환경농업 교육관)에서 300여명의 회원 및 관련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육계지부의 주관으로 제 6회 4개시군 양계기술교류 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정병국 국회의원과 김선교 양평군수 등 관련인사들의 참석으로 뜻 깊은



자리를 함께하면서 이날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는 '무항생제 육계 사양관리 기술'에 대해, 최길영 경기도 육계지부연합회장은 '백신 지원비 등 연합회 활동 상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4개 지부의 단합대회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 회장동정



◀ 최준규 회장

- 8.27 한EU FTA 3차 농업협상 준비 워크숍
- 8.28 축산생산자단체장 회의
- 8.30 2007 축산물브랜드전
- 9. 5 채란분과위원회
- 9. 5 육계산업 간담회
- 9. 6 한 · 일 양계협회 친선교류회
- 9. 7 구구데이 행사
- 9. 7 농민단체장 간담회
- 9. 8 9월 편집위원회
- 9.12 대전축산박람회 개막식
- 9.14 박홍수 전 농림부 장관 만찬
- 9.18 FTA 대응 토종닭 산업의 발전방안 심포지엄
- 9.19 기자간담회
- 9.20 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